

사형 틀, 장식품?

Execution Device Or Decoration?

고린도전서 1:18-24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4월 17일 종려주일 설교

¹⁸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¹⁹기록된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²⁰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²¹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²²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²³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²⁴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형 틀 십자가

지금은 인기가 있어서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합니다만 십자가라는 게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본디 뭐였는지도 아시지요? 예,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단두대 목걸이나 전기의자 귀걸이 같은 것 혹시 보셨습니까? 전 못 보았습니다.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요. 사람 죽이는 도구를 누가 장식품으로 삼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겠지요.

사형 틀이긴 마찬가지인데 이 십자가는 어떻게 장식품이 됐습니다. 사형수가 아예 달려 있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형 틀이면서 또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장식품이 된 십자가, 극과 극이지요? 사람을 죽이던 도구가 어떻게 장식품까지 되었는지 그 내력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사형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나무를 십자 모양으로 만들어 높이 세우고 거기 사람을 달아 놓으면 진이 빠지면서 서서히 죽어 가는데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극도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이 십자가 형은 주후 사 세기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누가 폐지시켰는지 혹 아시겠습니까? 예, 최초의 그리스도인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일세가 없었습니다. 죄 없으신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리는 마음으로 십자가형 제도를 없애 버렸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사시던 때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 때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게 사형,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이 십자가를 가끔 언급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 10:38; 16:24:: 막 8:34; 눅 9:23).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으니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죽는 길, 아니 무자비한 사형을 당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말씀을 좋아하겠습니까? 예수가 좋아 따라 가면서도 정말 죽어야 되나, 정말 그 끔찍한 사형을 당해야 하나,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그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참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했을 때 주님은 “네 이름이 반석 아니냐?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또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핍박을 많이 받으시고 살해를 당하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님, 무슨 그런 당치도 않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일이 주님한테 생기면 안 되지요.” 우리말 성경은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간했다, 그러니까 간청했다 했지만 원문은 책망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무랐다는 말이지요. 뭐가 그렇게 싫었겠습니까? 부활이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 때만 해도 제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막 9:10). 핍박을 받는다는 게 우선 싫었겠고 더 나아가 살해를 당할 거라는 건 더욱 싫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십자가라는 표현은 안 쓰시고 그냥 살해를 당한다 하셨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남의 손에 살해를 당하시든 사고로 죽으시든 예수께서 죽으시는 건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방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선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실 교회는 음부의 권세 곧 죽음이 넘보지 못할 영생의 집입니다. 그 엄청난 교회를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베드로 위에 세우셔야 됩니다. 또 열쇠도 주셔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열쇠는 힘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외제 차 열쇠랑 아파트 열쇠를 가지면 연봉 센 사람한테 시집을 간다 하던데 다른 열쇠도 아니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셨습니까. 영국 여왕이 지금 머느리를 본다고 야단인데 이 땅의 나라도 권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열쇠입니다. 교회도 세우시고 열쇠도 주셔야 되는데 죽으시면 되겠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니 누가 사탄입니까? 베드로가 사탄입니다. 조금 전에 주님이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마,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마” 하신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왜 한 순간 사탄이 됐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자”는 원문이 한 낱말로 “스칸달론” 영어로 하면 “스캔들”입니다. “너는 내 스캔들이다” 하신 거지요.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리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돌부리가 스캔들입니다. 돌부리가 앞에 있으면 넘어지지요. 그래서 “내 뒤로 가거라”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스캔들이 된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이 핍박을 받고 살해를 당하시는 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사람 생각만 갖고 보았다는 말입니다. 뭐가 사람 생각입니까? 핍박당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사는 게 좋고, 살해당하는 것보다는 살아남는 게 좋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 대신 온갖 핍박을 당하시고 죄가 가져온 가장 큰 불행인 죽음을 직접 맛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죄를 이기고 우리 구원의 길을 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가 좋았겠지요. 천국 열쇠도 갖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교회도 서고 천국 열쇠도 생긴다는 걸 몰랐습니다.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얼른 예루살렘으로 가서서 권력을 잡으셔야 교회를 세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천국을 쥐고 흔드는 열쇠도 생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세상 나라와 다른, 아니 세상 나라와 정반대가 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스캔들이 되고 사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승리의 입성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만, 종려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옛날 왕들이 전쟁에 이긴 다음 개선 행진을 할 때 말을 타고 개선문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주님도 흉내를 내셨는데 참 우습습니다. 멋진 말 대신 초라한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셨습니다. 바닥에는 카펫 대신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이 깔렸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건 또 뭡니까?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정권을 접수하시는 대신 당시 권력자들에게 심문을 받으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신 걸 두고 우리는 승리의 입성이라 부릅니다.

베드로처럼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아니지요. 그게 무슨 승리입니까? 초라한 입성이고 낮간지럽고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먼 옛날 에덴동산에서 약속하신 구원, 모세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시고, 오랜 세월 공 들여 오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드디어 누르고 참 승리를 이루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 승리의 입성 맞습니다.

베드로가 한 자리에서 반석도 되었다가 사탄도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지금은 장식품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같은 베드로, 같은 십자가인데, 극과 극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보기에 따라 그렇습니다. 제대로 믿음을 가진 베드로는 반석이지만 영똥한 생각을 하면 사탄이 됩니다. 십자가도 로마 역사만 아는 사람에게는 사형 틀이었지만 주 예수의 구원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 역시 사람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류 구원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사람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보고 묵상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거부당한 십자가

“십자가의 도”라 했는데 여기서 “도”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의 그 말씀과 같은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원리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보기에 따라서 정반대가 됩니다. 멸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입니다. 멸망하는 사람은 23절에 나오는 이방인 특히 당시의 불신자를 대표하는 그리스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곧 신은 존귀한 분이고 사람은 천한 존재인데 존귀하신 신이 천한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면 그건 바보짓이라는 겁니다. 천한 게 죽어 귀한 분을 살리는 게 지혜인데 거꾸로 됐으니 어리석다 한 거지요.

이게 세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만큼 철학을 많이 한 나라가 없지요. 철학을 영어로 필로소피라 하는데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 십자가를 못 보았으니 지혜가 지혜가 아니지요. 십자가 때문에 세상 지혜는 미련한 게 되어 버립니다.

유대인은 그럼 어떻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라 하였는데 이 “거리끼는 것”의 원문이 또 스캔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걸려 넘어지실 뻔 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건 싫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바란 구원은 베드로가 기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구원, 이 세상에서 유익을 얻는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이들이 기다린 구세주는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져주는 커녕 로마에 의해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힘없는 자가 어떻게 구세주가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그 분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달려 죽은 사형 틀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파당 넘어졌습니다.

유대인은 또 표적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걸 보여 주시면 아니라 하고 그런 다음 또 표적을 보여 달라 요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이신 게 요나의 표적이지요? 요나를 통해 죽었다 다시 사실 것도 보이셨지만 요나가 이방 도시 니느웨에 전도해 사람들이 회개한 걸 기억해라 하신 말씀입니다.

뒤집는 십자가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은 맛보는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이 아는 게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시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며 거부하는 이 십자가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합니다. 세상 원리를 뒤집어엎으시는 하나님, 사람이 좋다 하는 걸 아니라 하시고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 걸 오히려 좋다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것을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지식,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을 한다고 야단이고 또 학교에도 열심히 보냅니다. 권력도 좋고 돈도 좋고 좋은 가문이든 건강이든 좋은 평판이나 명예도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 세상 지혜가 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구원, 영생을 모르는데요. 세상의 논리나 말재주로 다른 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십자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설명을 못 하니 그런 말재주가 무슨 말재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돈, 돈 하지만 가장 귀한 걸 살 수 없다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은 힘인데 가장 귀한 영생을 내 것으로 쟁취하지 못한다면 그건 힘이 아니라 오히려 무능적이고 무기력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그럼 누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습니까? 우선은 이 진리는 전하는 방법부터 별스럽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전도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선포는 그냥 “이거다” 하고 마는 겁니다. 사람들 머리에 쑥쑥 들어가게 설명해 주는 대신 “이거다, 그냥 믿어라” 하는 겁니다. 앞뒤 맞춰 보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해 주니 “미련한” 방법이지요. 그렇지만 그 미련한 게 하나님의 미련이다 보니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사람들 눈에 어리석은 것이고, 그걸 전하는 방법도 미련한 것이다 보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만 믿게 되었습니다. 그냥 선포만 하는 방법은 사실 지식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사회에서 지

위가 높은 낮은 아무 차별이 없이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선포하고 보니까 골고루 믿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억눌린 사람이 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있는 사람은 파당 넘어져 버렸거든요. 제가 가진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 안 맞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는데 이 똑똑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십자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기준으로 보아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전 1:26-27).

십자가의 길

십자가는 뒤집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부터 처음에는 말만 들어도 소름끼치는 사형 틀이었지만 지금은 장식품,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철저한 패배의 상징이었지만 그 패배가 오히려 승리, 곧 우주 역사에서 가장 값진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주님은 위대한 승리의 입성을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곧 주님의 그 십자가의 원리대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저주의 길로 가셨습니다. 죄와 고통으로 찢긴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친히 아픔의 길, 괴로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조롱도 하고 욕도 합니다. 바보짓을 했구나 하고 외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 일인지 그걸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죽어야 사는 원리, 가지지 못한 자가 복되고, 슬피 우는 자가 위로를 받고, 힘쓰는 사람이 아닌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으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살려 놓으시고는 다시 사형 틀을 지고 따라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고생하고 욕도 먹고 결국은 죽으라 하십니다. 말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산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어야 진짜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고 삽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됩니까? 평소에는 엉뚱한 소리들 많이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건강하게 사는 게 기독교라는 말도 하고 힘들 때 의지하려고 믿는다 하기도 합니다. 바라는 걸 얻으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걱정근심 없이 한평생 잘 살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십자가입니다. 뒤집어지는 원리, 죽어야 사는 원리, 살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서는 죽고 또 죽는 그런 원리가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기에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배당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장신구도 이왕이면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 목에도 걸고 귀에도 달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귀에 걸든 목에 걸든 아니면 이렇게 큼지막하게 세워 놓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이게 사형 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형 틀이던 십자가가 어떻게 장신구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형 틀이었기 때문에 장신구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달려 죽으신 사형 틀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진정 사랑한다면 주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나도 날마다 달려 죽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걸 믿을 때, 다시 말해 이 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꿇데기 십자가

오늘 주보에는 참 가슴 아픈 사진을 하나 실었습니다. 몇 해 전 한국에서 정부가 사립학교 비리를 바로잡겠다고 사학법을 만들었는데 기독교 사학 비리가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종교탄압이라 하면서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그 때 반대 데모를 하면서 십자가를 큼지막하게 만들어 앞장세웠는데 제 할 일을 하는 정부에 맞선 것도 잘못이지만 기독교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십자가를 만들어 앞장세운 것은 더 큰 잘못이었습니다. 십자가 뒤로 구호가 보이지요? “일천만 명 서명하여 사학수호 동참하자.” 우리 수가 천만이다!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겠다는 말 아닙니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너 죽을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십자가의 원리와 반대로 사용했다는 좋은 증거가 사진에 하나 보이지요? 십자가 끝에 바퀴를 하나 달았습니다. 그냥 메고 가기에는 좀 무거웠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보다 훨씬 작는데 그게 뭐가 무겁다고 바퀴를 달았는지 모르지만 바퀴를 단 십자가는 십자가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부끄러움이고 가장 치욕스러운 사형인데 그걸 쉽게 만들고 싶었다면 아예 십자가를 끌고 나오지를 말았어야지요.

불신자들도 십자가가 뭔지 압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갖고 교회를 많이 놀렸습니다. 참 낮이 뜨겁지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랑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를 내 세력을 과시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무기로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것도 참 뜻을 무시한 채 모양만 갖추고 쇼만 했으니 그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를 또 다시 욕보인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 일을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 우리 모습, 내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무거우면 아예 지지를 말지 괜히 지고 무거우니까 바퀴를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니 십자가를 버리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그냥 지고 가자니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리도 바퀴를 겁니다. 바퀴만 답니까? 나무는 무거우니까 재료도 가벼운 걸로 바꾸고 그래서 모양만 십자가일 뿐 희생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닌, 그야 말로 우아하고 보기에 좋은 그런 장식품 십자가가 되고 맙니다. 말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마음으로는 세상의 좋은 것들, 돈이든, 힘이든, 쾌락이든, 명예든, 그런 걸 섬기는, 다시 말해 두 주인을 섬기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십자가 구원

십자가가 구원을 줍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사형 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 예수의 사랑을 알 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을 믿는 나도 여기 달려 죽은 줄 알고 내 정욕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잘난 모든 것을 죽여야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립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좀 살려 주세요, 한다면 우리는 사탄이 되고 맙니다. 세상 생각을 뒤집는 십자가를 거꾸로 세상 것을 더 가지고 누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걸려 넘어집니다.

주 예수께서 죽음의 길을 가셨던 이 날 우리에게 십자가의 진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라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